



미 증시, 파월의장 발언 소화하며 혼조세

미국 증시 리뷰

29 일(수) 미국 증시는 5 월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둔 가운데, 1 분기 경제성장을 확정치 부진, 파월 의장 발언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장중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되며 혼조세로 마감(다우 +0.27%, S&P500 -0.07%, 나스닥 -0.03%, 러셀 2000 -1.12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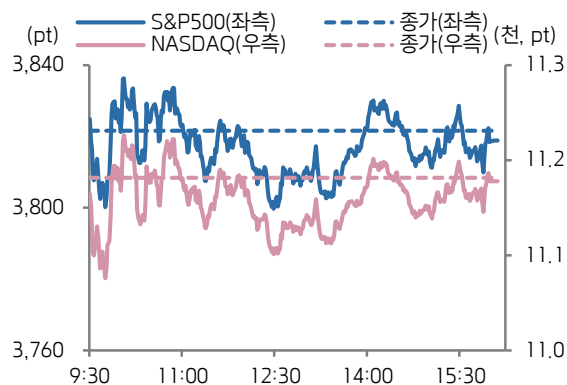
미국 1 분기 경제성장을 확정치는 QoQ 연율 -1.6%(잠정치 -1.5%, 4Q21 +6.9%)로 잠정치보다 부진하게 발표, 분기 성장률이 (-)를 기록한 것은 20 년 2 분기 이후 처음. 두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할 경우 경기 침체로 판단되는 만큼 잇따른 경제지표 부진으로 이에 대한 우려를 높임..

ECB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은 '연준이 과도하게 긴축을 단행하는 리스크가 있지만, 이보다 더 큰 리스크는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것', '강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%로 되돌릴 방법이 있다'고 발언하며 연준의 우선 정책이 물가 안정이라는 점,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믿음을 재차 확인.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된다면 7 월 FOMC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.

업종별로 헬스케어(+0.9%), 필수소비재(+0.5%), 통신(+0.3%) 업종은 상승, 에너지(-3.4%), 부동산(-0.8%), 소재(-0.7%) 업종은 하락. OPEC+ 회담을 앞두고 증산 기대감이 커지며 유가가 4 거래일만에 하락한 영향으로 에너지 업종 약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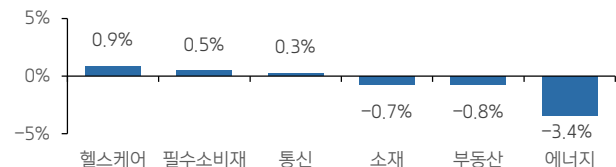
한편 2 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개별 종목 실적 및 전망치 하향 여부에 주목.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(-3.18%)은 바클레이즈에서 디램 재고 과잉 우려로 목표 주가를 하향한 여파로 하락. 테슬라(-1.79%)는 2 분기 차량 인도 실적 우려로 하락. 앞서 실적을 발표한 카니발(-14.13%)은 모건스탠리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축소 가능성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자 급락, 이 여파로 크루즈 관련주는 10% 하락, 여행 관련주 역시 약세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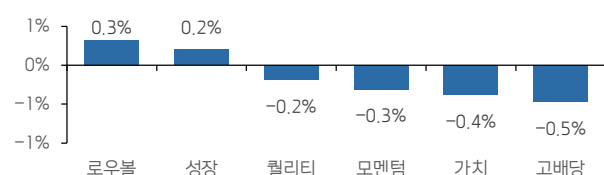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3,818.83	-0.07%	USD/KRW	1,299.38	+1.22%
NASDAQ	11,177.89	-0.03%	달러 지수	105.13	+0.6%
다우	31,029.31	+0.27%	EUR/USD	1.04	+0%
VIX	28.16	-0.71%	USD/CNH	6.71	-0.04%
러셀 2000	1,719.37	-1.12%	USD/JPY	136.57	-0.01%
필라. 반도체	2,583.98	-2.2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3,221.94	-0.44%	국고채 3년	3.557	+0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660	-2.5bp
Eurostoxx50	3,514.32	-0.99%	미국 국채 2년	3.039	-7.1bp
MSCI 전세계 지수	603.50	-0.53%	미국 국채 10년	3.089	-8.2bp
MSCI DM 지수	2,584.26	-1.48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030.07	+0.25%	WTI	109.78	-1.77%
MSCI 한국 ETF	58.15	-1.54%	금	1817.5	-0.2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1.54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4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38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01.3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2 원 상승/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(-2.2%)이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
2. 전거래일 개별악재로 급락했던 자동차 및 2 차전자주들의 반등 여부
3. 장중 혹은 동시호가에 리밸런싱 자금 유출입 확대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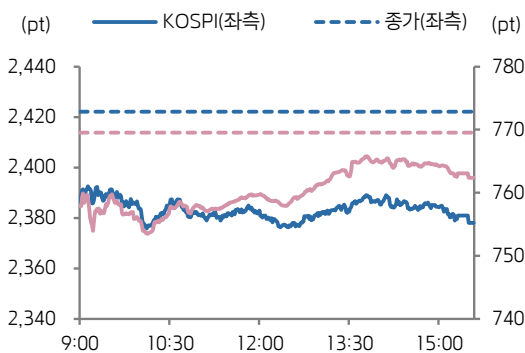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29 일 ECB 정책 포럼에서 파월 의장은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수요위축, 경기 부진 등 긴축에 침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,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가 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. ECB 총재 또한 저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중앙은행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올 지에 대해 확신과 자신감이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.

결국 중앙은행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으며, 그 과정에서 성장 둔화는 시장참여자들과 실물 경제주체들이 감내해야하는 것으로 보임. 미국 1 분기 성장을 최종치(-1.6%연율, 컨센 -1.4%)가 부진했던 배경도 인플레이션 문제 등으로 민간소비(+3.1%→+1.8%)가 하향 조정된 영향이 컸으나, 2 분기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이 반영되지 않지 않은 소비데이터라는 점에서 2 분기 민간 소비 결과를 둘러싼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. 따라서 현시점부터 7 월말까지 예정된 CPI, 소매판매, 2 분기 GDP 등 주요 경제지표들의 결과에 따라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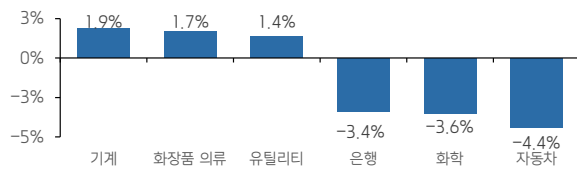
전일 미국 소비심리지표 냉각에 따른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는 금일에도 인플레 불안, 원/달러 환율 1,300 원 재돌파 우려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부담(-2.2%) 등으로 제한된 추가흐름을 보일 전망. 전일 개별 악재로 동반 폭락세를 보였던 자동차(독일 검찰 압수수색 등), 2 차전자(배터리 공장 재검토 등) 관련주들이나 원전, 플랜트, 방산 관련 테마주들은 낙폭과대 인식 또는 정책 수혜 모멘텀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추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 또한 금일은 월말/분기말/반기말일에 해당되는 만큼 장중 외국인 및 기관 리밸런싱 자금 유출입에 따른 수급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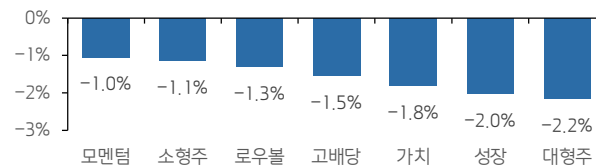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추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추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